ISSN 1229-0718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권 2호(2013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3세부터 7세 까지 어머니의 애정/온정적 양육태도의 변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주는 영향	김수정 • 곽금주
진술조사 맥락에서 아동기억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	이승진
아동의 혼합정서 이해에 대한 정서 이야기 개입 효과	정윤경 • 송현미
후기 아동기의 종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연구	박지은 • 설경옥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 -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인 -	조영일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김종훈 • 성지현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 - 내국인 어머니와 중국계 이주 어머니를 대상으로 -	방은정 • 성지현
성숙한 노화 태도와 성공적 노화 및 심리사회적 성숙의 관계 - 성숙한 노화개념의 탐색 -	안정신 • 정영숙 • 서수균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자기 조절 능력이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하나

한국발달심리학회

2013년 6월 15일
2013년 6월 15일

발행처: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성은현(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주 소: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78
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내)
전 화:041-560-8132

편집위원장: 정윤경(가톨릭대학교)
편집위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김혜온(목포대학교)
정영숙(부산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조영희(California State)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심사위원(가나다순):

곽금주 (서울대학교)	곽윤정 (세종사이버대학교)	김근영 (서강대학교)	
김명식 (전주대학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수정 (서울대학교)	김연수 (서울대학교)
김현수 (한양대학교)	김희화 (부산대학교)	남은영 (서울여자대학교)	박영신 (경북대학교)
방희정 (이화여자대학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성은현 (호서대학교)	성현란 (대구가톨릭대학교)
송하나 (성균관대학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희옥 (군산대학교)	안신호 (부산대학교)
오영희 (덕성여자대학교)	유경 (한림대학교)	유연옥 (계명대학교)	이승복 (충북대학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이옥경 (성신여자대학교)	이종숙 (덕성여자대학교)	이현진 (영남대학교)
장문선 (경북대학교)	정명숙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정영숙 (부산대학교)	조아미 (명지대학교)
조영희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최영은 (중앙대학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학회 회원에게는 무료로 배부하며, 비회원에게는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한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학회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26, No. 2. 2013. 6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Cheon An, Korea.

Editor: Yoon-Kyoung Jeo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Editor:
Hye-On Kim(Mokpo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Na Song (Sungkyunkwan University)
Hyeon-Ju Song(Yonsei University)
Young-Hee Cho(California State University)
Young-Sook Jeong(Busan National University)

* 이 학술지는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3. Vol. 26. No. 2, 67-85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연구[1)]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인-

조 영 일[2)]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집단 내에서의 종단적 변화 형태의 빈도 및 학교폭력 집단 유형 내에서의 종단적 변화 형태를 검증하였고, 종단적 변화 형태의 예측변수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2,844명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2년에 걸쳐 조사한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로,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 경험은 1차년도 조사보다 2차년도 조사에서 비율이 줄어들었다. 즉, 1차 년도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은 77%였으나 2차 년도의 조사에서 83%로 증가하였다. 둘째로,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의 경험은 단기적(즉, 1년 미만)이었다. 1차 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 경험을 보고한 아동들(n=478) 중 77.7%의 학생들이 2차 년도의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셋째로, 개인 수준의 예측변수들 중에서 아동들의 우울, 분노, 공부압력,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이었다. 특히, 1차 년도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이 2차 년도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의 변화를 예측해 주는 변수는 부모애착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및 제안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예측요인, 보호요인, 집단 변화, 로지스틱 회귀분석

학교폭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 및 학교폭력의 예방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외형상으로 연소화·집단화·광역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성인범죄를 모방하여 더욱 흉포화·교묘화·지속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학교폭력으로 인하

1)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하였다.
2) 교신저자: 조영일,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136-74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el: 02-920-7593, E-mail: yicho@sungshin.ac.kr, Fax: 02-920-2040.

여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곽대경 외, 2007). 특히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6년 17.3%,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 2011년 18.3%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율 또한 2006년 12.6%,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 2011년 15.7%로 나타나 2011년도의 조사에서 최근 6년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Schwartz, Dodge, Pettit와 Bates(1997)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공격적 피해자(aggressive victims)”와 “수동적 피해자(passive victims)”로 구분한 이래로, 학교폭력 관련 집단들은 4개(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학교폭력 가해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다른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질적으로(qualitatively) 구분되는 발달경로를 보임이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Brame, Nagin, Tremblay, 2001; Lester, Cross, Dooleay, & Shaw, 2013).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학교폭력 집단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치료프로그램을 포함한 집단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Jenson, Dieterich, Brisson, Bender, & Powell, 2010). 이를 위해서 각각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심리학을 비롯한 많은 사회과학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로 주목을 받아왔다(신희경, 2006; 이경님, 2001; 이숙, 이춘아, 1998; 한국교육개발원, 1998).

최근의 학교폭력 연구는 가해행동과 피해행동 간의 상호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1; 이춘재, 곽금주, 2000; 정지민, 1998). 가해행동 집단과 피해행동 집단 구성원들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다(신희경, 2006; 박순진, 2009).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관련 집단들의 구성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의 집단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각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박순진, 2006, 2009).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자 집단에 속했던 초기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에 진급을 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 집단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가 가능하다. 예방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 피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 집단 혹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의 구성원들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의 이동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경향에 맞추어,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변화 형태를 밝히는 것과 변화의 형태를 예측하는 변수들을 탐색하는 것 역시 학교폭력 연구에서 주요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박순진, 2005, 2006, 2009; 박종효, 2003, 2005).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혹은 학교폭력의 가해 혹은 피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Lester, Cross, Dooleay, & Shaw,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집단들의 구성원 변화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집단들의 종단적 변화 형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집단유형과 관련된 변수들

학교폭력의 경험에 따라서 아동들을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학교폭력 가해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그들은 한 집단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른 집단으로의 이동이 빈번하게 관찰된다(조정실, 차명호, 2010). 학교폭력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들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기초하여,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관련된 예측변수들을 크게 세 가지 수준(즉, 개인수준, 부모수준, 학교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수준 변수

아동·청소년 시기 이전에 형성된 심리적 특성은 이후 청소년 시기의 심리적 부적응과 반사회적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정숙, 문보경, 2010; Rothbart & Bates, 1998). Rubin 등의 연구(1995)에 의하면, 쉽게 흥분하거나 짜증을 내는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행동을 보인다. 이와 별도로, Eigenberg와 동료들(1995)은 분노 수준이 높고 이에 대한 조절능력이 낮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냄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박종효(2005)가 분노 수준이 아동들의 공격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높은 수준의 분노를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방에게 외현적인 공격행동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공격행동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아동·청소년들의 분노수준의 증가는 피해행동의 증가 또한 예측된다. 이러한 분노와 공격행동 혹은 피해행동 간의 정적인 관련성은 아동·청소년들이 보이는 분노의 수준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염영미(2011)는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피해청소년으로 구분하면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염영미의 연구(2011)에서 비록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통계적으로 두 집단을 구분시켜주지는 못했지만, 두 집단들의 구성원들이 폭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덧붙여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분노 표현 방식, 공격성, 폭력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공격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후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성지희, 정문자, 2007).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집단들은 공격에 대한 (긍정적)태도의 수준이 다를 것이고,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신희경(2006)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 및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특히, 분노수준과 공격성에 대한 가치 판단적 태도가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노수준은 학교폭력 미경험 집단과 학교폭력 피해 집단을 구분시켜주었고,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들에 비해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보다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신희경의 연구에서 예측변수들이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구분에 가지는 종단적 영향력을 조사하였지만,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를 연구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폭력

의 주요한 원인으로 공부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욕구의 좌절을 지목했다(구창모, 1991; Barker, Dembo, & Lewin, 1941). 특히, 김혜원과 이해경(2000)은 집단괴롭힘 집단에 따라서 학업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관련 집단들은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김유경, 2004; 박지도, 최현경, 장우성, 조동환, 김정기, 2001).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들은 학교폭력 가해 집단에 속하는 또래들에 비해서 불안과 우울 수준이 높았다(한세영, 2010). 하지만 염영미의 연구(2011)에서는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의 수준은 학교폭력 관련 집단들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일관된 연구들은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불안과 우울이 중요한 변인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검증되어져야 함을 보인다.

부모 수준 변수

아동·청소년들의 공격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특성들이 있다(이해경, 김혜원, 2001). 그러므로 아동·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는 그들 부모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이는 갈등적인 행동은 자녀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Olweus, 1978). 김재엽와 정소연(1997)은 청소년들의 비행은 가정분위기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문제해결 방식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행하는 경우에 이를 관찰학습 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갈등상황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Bandura, Ross, & Ross, 1961).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부모 간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 비해서 학교폭력 가해 집단 혹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김혜원과 이해경(2000)은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들은 가정에서의 폭력 노출의 비율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에 덧붙여서, 학교폭력 관련 집단들은 지각된 부모 지지의 수준이 다름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은 학교폭력 피해 집단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가족지지를 보고하였다(김혜원, 이해경, 2000). 또한 부모의 지지는 자기통제 수준을 매개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언한다(백혜정, 2009). 부모 관여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Gecas & Schwalbe, 1986; Stattin & Kerr, 2003). 부모 관여는 부모 애착과 부모 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Collins & Laursen, 2004; Parker & Benson, 2004). 따라서 부모 지지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아동·청소년들은 부모 애착과 부모 통제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Haight, Kagle, Black, 2003).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들은 아동·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과 부모 통제의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 및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을 조사한 신희경(2006)의 연구에서 부모 관련 변수들로 사용된 것은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수준, 부모와의 갈등수준이었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아동의 양육자들이 가지는 공격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 비해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서, 부모와의 갈등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 비해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과 학교폭력 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교 수준 변수

아동·청소년들은 하루의 일과 중에서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장면에서 급우 및 교사와의 관계의 질은 아동·청소년들의 공격성과 문제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남영옥, 한상철, 2007; 이해경, 김혜원, 2001). 그러므로 아동·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는 급우 및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통해서 예측될 수 있다.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예측과 관련된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Choi & Cho, 2013). 보다 구체적으로 교사로부터 많은 지지를 지각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급우들에 비해서 학교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은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 집단 혹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지각하는 지지가 학생들의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학교폭력 집단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의 고립적인 교우관계(신희경, 2006)와 비행적 생활양식 수준(박순진, 2009)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들이 고립적인 교우관계를 자주 경험할수록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 비해서 학교폭력 피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신희경 2006). 박순진(2006, 2009)은 비행적 생활양식의 수준이 학교폭력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비행적 생활양식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들에 비해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보다는 학교폭력 가해 집단 혹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연 구 문 제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관련 집단들 간의 심리적·사회적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비록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하였다(박순진, 2009; 신희경, 2006). 하지만 학교폭력 집단 내에서의 종단적 변화 형태를 검증하거나 혹은 이러한 변화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사하는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집단 들 내에서 종단적 변화 형태의 빈도를 조사하고, 종단적 변화 형태를 예측하는 변수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들이 검증되었다.

연구문제 1. 학교폭력 집단유형(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의 빈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2. 하나의 학교폭력 집단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집단으로의 종단적 변화의 빈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개인 수준의 변수들(우울, 분노, 공부 압력,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은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4. 양육자와 관련된 변수들(부모애착, 부모통제, 부모갈등,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은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5. 학교 관련 변수들(교사애착, 고립적 교우관계,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은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단자료인『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를 사용하였다. KYPS는 전체 초등학교 4학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군집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1차년도(2004)에 초등학교 4학년 2,844명(남 1,524명(53%), 여 1,320명(46.4%))을 대상으로 학생들은 개별면접조사 방법을 그리고 학부모들은 전화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2차년도(2005)인 초등 5학년 시기에는 전체 4.8%의 표본을 유실하여 2,707명(남 1,450명(53.6%), 여 1,257명(46.4%))이 조사에 응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빈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관련 측정 문항들에서 결측치가 없는 아동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빈도분석에서는 1차 년도에는 2,473명, 2차 년도에는 2,461명의 반응들이 사용되었다. 둘째,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종단적인 변화 형태 및 이에 미치는 예측변수들을 검증하기 때문에,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관련 측정문항들에서 결측치가 없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예측변수를 검증하는 분석에서는 총 2,208명(남 1112명, 여 1096명)의 아동의 학교폭력 관련 변수들과 이론적으로 연관된 변수들에 대한 반응이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패널자료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관련 변인들의 측정도구 및 문항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학교폭력의 유형을 조사한 기존의 연구(신희경, 2006)와 학교폭력 집단의 종단적 변화를 조사한 연구들(박순진, 2006, 2009)에서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폭넓게 정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은 다섯 가지 행위 유형의 경험 유무로 조사하였다. 학교폭력 가해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들을 집단따돌림 시키기'가 사용되었다. 학교폭력 피해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맞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기',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남에게 협박당하기', '다른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 당하기'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동들 중 하나의 경험이라도 보고하게 되면 학교폭력 가해 집단 혹은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 명

명되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관련 행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관련 행동을 모두 경험한 초등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개인변인

분노 초등학생들의 분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3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2)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3)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점수(범위=[3, 15])가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분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68이었다.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아동들의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3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2) 나는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3)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점수(범위=[3, 15])가 높을수록 아동이 공격행동에 가지는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60이었다.

우울 아동들의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3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2)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3)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점수(범위=[3, 15])가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67이었다.

공부 압력 아동들이 지각하는 공부에 대한 압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두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부모님의 공부에 대한 기대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2) 공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점수(범위=[2, 10])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공부에 대한 압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57이었다.

부모변인

부모애착. 아동들의 지각하는 부모의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6개의 측정 문항이 사용되었다. 6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점수(범위=[6, 30])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76이었다.

부모통제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4개의 측정 문항이 사용되었다. 4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4)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점수(범위=[4, 20])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80이었다.

부모갈등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갈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2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2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2)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총점(범위=[2, 10])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52이었다.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아동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2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2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2)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총점(범위=[2, 10])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65이었다.

학교변인

교사애착 아동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3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2)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3)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점수(범위=[3, 15])가 높을수록 조사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55이었다.

고립적 교우관계 아동들의 고립적 교우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2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2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 2)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린다(역문항).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점수(범위=[2, 10])가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고립적 교우관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55이었다.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 아동들이 지각하는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2개의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2개의 측정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2)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문항의 점수(범위=[2, 10])가 높을수록 아동이 느끼는 주위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년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값은 .67이었다.

표 1. 학교폭력 집단 유형별 사례 수

	2003년도 (초등 4학년) *N*=2473	2004년도 (초등 5학년) *N*=2461
무경험 집단	1908 (77.15)	2032 (82.57)
피해 집단	259 (10.47)	151 (6.14)
가해 집단	224 (9.06)	217 (8.82)
가해피해 집단	82 (3.32)	61 (2.4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비율.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교폭력 집단 유형의 빈도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집단 내에서의 종단적 변화 형태의 빈도를 검증하며, 집단 내에서의 종단적 변화 형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을 매해 년도에 4개의 집단으로 구별하고 이들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의 학교폭력 집단들의 빈도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빈도분석(cross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미치는 변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단순 다항 로지스틱(simple multinomial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3년도의 학교폭력 집단유형에서 2004년도 학교폭력 집단유형으로의 변화 형태를 결과변수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003년도의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을 이후의 측정에서 학교폭력 집단유형에 따라서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2003년도의 학교폭력 집단유형에 따라서 총 4번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3년도에 수집된 변수들은 예측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중다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대신에 단순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SAS 9.2이 활용되었다.

결 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학교폭력 집단유형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의 결과를 <표 1>에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도의 아동들은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 1908명(77%)이, 학교폭력 피해 집단에 259명(10%)이, 학교폭력 가해 집단에 224명(9%)이,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는 82(3%)명이 속했다. 대다수의 아동들은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4년도에는 아동들이 가장 많이 속한 학교폭력 집단은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n=2032, 83%)이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가해 집단(n=217, 9%), 학교폭력 피해 집단(n=151, 6%),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n=61, 2%)이었다.

표 2.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 형태별 사례 수

2003년도	2004년도				
	무경험 집단	피해 집단	가해 집단	가해피해 집단	총합
무경험 집단	1500 (86)	78 (5)	119 (7)	33 (2)	1730 (100)
피해 집단	164 (76)	25 (12)	20 (9)	6 (3)	215 (100)
가해 집단	156 (82)	7 (4)	25 (13)	3 (2)	191 (100)
가해피해 집단	51 (71)	7 (10)	10 (14)	4 (6)	72 (100)
총합	1871	117	174	46	220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비율. 반올림으로 인하여 비율의 합이 100을 초과할 수 있음.

학교폭력 집단의 변화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의 학교폭력 집단 유형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의 결과를 <표 2>에 보고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경험 문항에 응답한 아동들 중에서 2003년도 조사에서는 1730명의 아동들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 속하였다. 이들은 2차년도(2004) 조사에서 1500명(86%)의 아동들이 동일한 집단 유형인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119명(7%)은 학교폭력 가해 집단으로, 78명(5%)은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 33명(2%)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1차 년도와 2차 년도 모두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경험 문항에 응답한 아동들 중에서 215명의 아동들이 1차년도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집단에 속하였다. 이들은 2차년도 조사에서 164명(76%)의 아동들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25명(7%)은 이전과 동일한 집단인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 20명(9%)은 학교폭력 가해 집단으로, 6명(3%)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집단에 속한 191명의 아동 중에서 2차년도의 조사에서는 156명(82%)의 아동들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25명(13%)이 이전과 동일한 학교폭력 가해 집단으로, 7명(4%)이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 3명(2%)이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하였다.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한 72명의 아동 중에서 2차년도의 조사에서는 51명(71%)의 아동들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10명(14%)이 학교폭력 가해 집단으로, 7명(10%)이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 4명(6%)이 이전 조사에서와 동일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하였다.

위와 비슷하게,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를 2차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는 1871명의 아동들이 속하였다. 이중에는 가장 많은 아동들이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 순으로 이동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 집단에는 117명의 아동들이 속하였다. 이중에는 가장 많은 아동들이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부터 이동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집단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으로 부터의 이동한 아동들의 수는 동일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경험 집단에는 174명의 아동들이 속하였다. 이중에는 가장 많은 아동들이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

표 3. 무경험 집단 대비 학교폭력 집단유형들의 승산비(odds ratio)

예측변수	피해집단	가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우울	**1.34 [1.04, 1.72]**	1.15 [0.93, 1.42]	1.30 [0.89, 1.91]
분노	1.08 [0.83, 1.40]	1.15 [0.93, 1.42]	0.99 [0.66, 1.50]
공부 압력	1.18 [0.94, 1.48]	1.16 [0.97, 1.40]	1.26 [0.89, 1.77]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0.87 [0.65, 1.18]	1.21 [0.95, 1.54]	1.14[0.73, 1.80]
부모애착	0.83 [0.61, 1.13]	0.91 [0.70, 1.18]	0.78 [0.49, 1.24]
부모통제	0.94 [0.74, 1.20]	0.83 [0.68, 1.00]	0.77 [0.54,1.10]
부모갈등	1.25 [0.95, 1.65]	0.95 [0.72, 1.24]	1.29 [0.85, 1.95]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1.17 [0.87, 1.58]	0.96 [0.72, 1.26]	1.45 [0.98, 2.16]
교사 애착	0.87 [0.67, 1.14]	0.91 [0.73, 1.12]	0.76 [0.51, 1.14]
고립적 교우관계	**1.77 [1.39, 2.26]**	1.00 [0.80, 1.25]	**2.15 [1.51, 3.06]**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	1.19 [0.82, 1.73]	1.14 [0.83, 1.56]	**1.83 [1.18, 2.85]**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표 4. 피해 집단 대비 학교폭력 집단유형들의 승산비(odds ratio)

예측변수	무경험집단	가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우울	1.28 [0.80, 2.05]	**1.89 [1.01, 3.55]**	1.48 [0.58, 3.77]
분노	1.68 [0.97, 2.90]	**2.42 [1.20, 4.85]**	**3.37 [1.29, 8.83]**
공부 압력	1.05 [0.68, 1.61]	**1.84 [1.02, 3.33]**	1.99 [0.83, 4.79]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0.84 [0.49, 1.45]	1.40 [0.64, 3.07]	1.13 [0.35, 3.64]
부모애착	1.09 [0.62, 1.93]	0.86 [0.39, 1.88]	1.40 [0.40, 4.95]
부모통제	1.18 [0.77, 1.81]	0.81 [0.45, 1.46]	1.07 [0.43, 2.68]
부모갈등	0.67 [0.40, 1.13]	0.72 [0.33, 1.56]	1.78 [0.73, 4.32]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1.37 [0.78, 2.41]	1.36 [0.65, 2.82]	**3.64 [1.52, 8.70]**
교사 애착	0.83 [0.52, 1.35]	0.67 [0.34, 1.32]	0.95 [0.35, 2.62]
고립적 교우관계	0.98 [0.64, 1.51]	1.34 [0.75, 2.41]	1.71 [0.72, 4.05]
주의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	1.47 [0.70, 3.09]	1.86 [0.72, 4.78]	2.02 [0.53, 7.63]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표 5. 가해 집단 대비 학교폭력 집단유형들의 승산비(odds ratio)

예측변수	무경험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우울	0.85 [0.50, 1.45]	2.07 [0.74, 5.78]	2.44 [0.56, 10.5]
분노	**0.55 [0.35, 0.86]**	0.89 [0.38, 2.08]	0.34 [0.07, 1.59]
공부 압력	1.05 [0.68, 1.62]	0.83 [0.34, 1.98]	1.75 [0.49, 6.28]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0.46 [0.26, 0.80]**	1.31 [0.43, 3.96]	0.36 [0.08, 1.59]
부모애착	0.82 [0.43, 1.58]	0.91 [0.25, 3.32]	0.82 [0.13, 5.05]
부모통제	0.92 [0.57, 1.50]	1.25 [0.47, 3.36]	1.49 [0.35, 6.33]
부모갈등	1.63 [0.80, 3.31]	2.51 [0.86, 7.32]	0.47 [0.02, 9.77]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1.05 [0.60, 1.82]	0.99 [0.32, 3.01]	1.90 [0.62, 5.82]
교사 애착	1.01 [0.64, 1.60]	0.82 [0.32, 2.10]	0.48 [0.10, 2.22]
고립적 교우관계	0.99 [0.61, 1.61]	2.20 [0.88, 5.51]	1.14 [0.30, 4.37]
주의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 낙인	0.71 [0.38, 1.35]	0.37 [0.07, 1.94]	0.45 [0.05, 4.31]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력 무경험 집단, 학교폭력 가해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 순으로 이동하였다. 2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집단에는 46명의 아동들이 속하였다. 이중에는 가장 많은 아동들이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 학교폭력 피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 학교폭력 가해 집단 순으로 이동하였다.

학교폭력 집단들의 변화 형태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2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은 기준집단으로 사용되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보고되었다. 우울과 고립적 교우관계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각각 1.34배와 1.77배 높았다. 고립적 교우관계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일탈적 아동으로 인식되는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각각 2.15배와 1.83배 높았다.

다음으로,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2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집단이 기준집단으로 사용되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보고되었다. 우울, 분노, 그리고 공부로 인하여 지각하는 압력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학교폭력 가해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각각 1.89배, 2.42배, 그리고 1.84배 높았다. 분노 수준이 높거나 부모들의 양육태도가 보다 공격적인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각각 3.37배와 3.64배 높았다.

표 6. 가해피해 집단 대비 학교폭력 집단유형들의 승산비(odds ratio)

예측변수	무경험집단	피해집단	가해집단
우울	0.51 [0.19, 1.39]	0.62 [0.18, 2.13]	0.55 [0.17, 1.79]
분노	1.05 [0.30, 3.72]	1.54 [0.34, 6.91]	1.19 [0.29, 4.97]
공부 압력	0.63 [0.24, 1.66]	0.76 [0.24, 2.40]	0.74 [0.25, 2.20]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0.91 [0.21, 4.00]	2.23 [0.37, 13.3]	0.72 [0.13, 3.96]
부모애착	**3.89 [1.06, 14.2]**	4.53 [0.84, 24.5]	**5.24 [1.06, 26.0]**
부모통제	1.94 [0.50, 7.54]	3.18 [0.61, 16.5]	3.60 [0.75, 17.3]
부모갈등	0.66 [0.25, 1.70]	0.06 [0.00, 1.43]	0.38 [0.11, 1.37]
부모의 공격적 양육태도	0.84 [0.24, 3.01]	0.62 [0.12, 3.33]	0.69 [0.15, 3.20]
교사 애착	4.11 [0.85, 19.9]	**5.74 [1.00, 33.0]**	4.57 [0.85, 24.7]
고립적 교우관계	0.80 [0.27, 2.39]	0.32 [0.07, 1.46]	0.97 [0.28, 3.35]
주의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1.46 [0.27, 7.86]	0.30 [0.02, 3.85]	1.44 [0.22, 9.34]

주. 굵은 숫자는 승산비가 α=.0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괄호 안의 숫자는 95%의 신뢰구간임.

다음으로,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2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집단이 기준집단으로 사용되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보고되었다. 우울과 분노의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각각 1.82배(1/0.55), 그리고 2.17배(1/0.46) 높았다.

마지막으로, 1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을 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2차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이 기준집단으로 사용되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보고되었다. 부모 애착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3.89배, 학교폭력 가해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5.24배 높았다. 교사 애착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학교폭력 피해 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이 5.74배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종단적 변화 행태와 이러한 변화 양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1차 조사년도에는 조사 대상자의 77%(1908명)만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이 속했으나, 2차 조사년도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83%(2032명)가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에 속하였다. 즉, 학교폭력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학생들의 비율은 학생들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었다. 이는 본 연구가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기간을 조사한 연구 결과(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2)와 일치된다. 하지만 최근에 학교폭력 관련 경험들의 증가는 보다 많은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많은 아동들의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 경험은 단기적(즉, 1년 미만)이었다.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 중에서 76%(164명)가 2차년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다. 1차 년도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를 경험한 아동들 중에서 82%(156명)가 2차 년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1차 년도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를 경험한 아동들 중에서 71%(51명)가 2차년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지속기간이 단기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지속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들의 비율이 51.6%이라는 정지선과 안현의(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폭력이 학교장면에서 빈번하게 관찰됨으로써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행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들이 일정부분은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를 줄였음을 시사한다(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하지만 1차 년도의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n=215)중 일부의 아동들(n=25, 12%)은 2차년도의 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를 보고함으로써 일정 수 이상의 아동들에게는 학교폭력 피해의 지속기간이 장기적(즉, 1년 이상)이었다.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이 자살행동을 실행한 가능성이 높거나(Valois, Kerr, & Huebner, 2012), 심리적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Williams, Rivera, Neighbours, & Reznik, 2007), 이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1차 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한 아동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아동들에 비하여 2차 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다른 학교폭력 집단 유형에 비해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의 심리적 건강이 상대적으로 덜 건강하고(Stein, Dukes, & Warren, 2006), 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잇기 때문(김희화, 2001), 이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변수들 중의 많은 것들은 개인 수준의 변수들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 개인들이 가지는 우울, 분노, 공부압력, 공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박순진, 2006, 2009; 신희경, 2006)에서 발견한 것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아동들의 우울, 분노, 공부압력, 공격행도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집단이나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서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집단유형의 변화와 관련된 개인 수준의 변수들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이었다. 즉, 학교폭력 가해피해의 형태를 보이는 아동들의 학교

폭력 가해/피해 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성인들이 해당 아동들에게 가지는 애착이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의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모애착이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을 하는 아동들의 치료 및 예방에는 부모들의 관심과 예측이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Choi & Cho, 2013)에서의 발견과 일치된다. 즉, 교사나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애착이 형성된 아동들은 친구들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주위의 성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구한다(Galand & Hospel, 2012). 따라서 이들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머물기 보다는 다른 집단(예를 들어, 학교폭력 무경험 집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자기보고식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이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아동들의 행동들을 조사한 것이 8-9년 전의 과거이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일반화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로,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의 수가 그러하지 않은 아동들의 수에 비하여 적었다. 특히, 1차 년도 조사에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은 72명이었다. 이 중에서도 2차 년도 조사에서 다시 학교폭력 가해피해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4명뿐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측변수들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검증력(power)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통계적으로 학교폭력 집단들의 변화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 일지라도 작은 사례 수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서,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수가 적은 관계로 중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대신에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폭력 집단유형들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집단들의 변화를 예측하는 개인수준, 부모수준, 그리고 학교수준의 변인들을 조사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 혹은 가해 경험을 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참 고 문 헌

곽대경, 기광도, 김상원, 박정선, 박철현 (2007).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청목출판사.

구창모(1991). **청소년 문제론**. 서울: 청소년개발원.

김유경(2004). 청소년의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인지적 특성: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엽, 정소연(1997). 청소년 비행과 가정폭력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중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1), 71-93.

김혜원, 이해경(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일반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및 가해-피해집단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2). 119-141.

남영옥, 한상철(2007).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들의 영향력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15(1), 77-89.

박순진(2005).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 연구**. 13(2), 241-269.

박순진(2006). 청소년 폭력 비행에 있어서 피해-가해 연계의 변화. **형사정책연구**. 17(1), 47-88.

박순진(2009).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가해 경험의 발전. **형사정책연구**. 20(10). 71-94.

박영신, 김의철(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행동특성: 폭력 가해, 폭력 피해, 폭력 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박종효(2003). 공격적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행동. **교육학연구**. 41(3). 423-449.

박종효(2005).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대한 이해: 선행요인 탐색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9-35.

박지도, 최현경, 장우성, 조동화, 김정기(2001). 불량행위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정신병리. **신경정신의학**, *40*(4), 640-655.

백혜정. (2009).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비행 경험 관계에서의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37-56.

성지희, 정문자(2007).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아동학회지**, 28(5). 1-18.

신희경(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297-323.

이경님(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8). 37-52.

이숙, 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6-77.

이봉주, 김예성, 임정임(2009).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연구: 논리모델에 기반하여, **한국청소년연구**, 20(2), 257-281.

이정숙, 문보경(2010). 유아의 기질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55-74.

이춘재, 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8-80.

이해경, 김혜원(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염영미(2011). 학교폭력 가해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피해청소년의 특성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8(3), 117-136.

정지민(1998). 학교폭력 피해-가해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정지선, 안현의(2008). 청소년 학교폭력의 복합 외상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45-160.

조정실, 차명호 (2010).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서울: 학지사.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12). 2011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한세영(2010). 가해 집단과 가해피해 집단의 공격성과 관련된 자존감,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인간발달연구, 17(1), 125-143.

Bandura, A., Ross, D., & Ross, S. A. (1961). Transmission of aggression through imitation of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3), 575-582.

Barker, R. G., Dembo, T., & Lewin, D. (1941). Frustration and aggression: An experiment with young children. *University of Iowa Studies in child Welfare*, *18*, 1-314,

Brame, B. Nagin, D. S., Tremblay, R. E. (200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school entry to latent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2), 503-512.

Choi, S., & Cho, Y. I. (2013). Influenc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on bystanders' roles in school bullying among Korean-Americ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4*(1), 37-81.

Collins, W. A., & Laursen, B. (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influence.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pp. 331-361). Hoboken, NJ: Wiley.

Eig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zk, P., Smith, M., & Karbon, M. (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8*(1), 37-46.

Galand, B., & Hospel, B. (2012) Peer victimization and school disaffection: Exploring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Online Version of Early Publication.

Haight, W. L., Kagle, J. D., & Black, J. E. (2003).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Foster Care Visits: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Social Work*, *48*(2), 195-207.

Jenson, J. M., Dieterich, W. A., Brisson, D., Bender, K. A., & Powell, A. (2010).

Preventing childhood bullying: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denver public school trial.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0*(5), 509-517.

Lester, L., Cross, D., Dooleay, J., Shaw, T., (201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victimization: Predictors and outcomes. *Social Influence*. *8*(2-3), 107-130.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

Parker, J. S., & Benson, M. J. (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 and adolescent functioning: self-esteem, substance abuse,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9*, 519-530.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N. Eisenberg (Ed.), W. Damo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105-176). NY, NY: Wiley.

Rubin, K. H., Coplan, R. J., Fox, N. A., & Calkins, S. D. (1995).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49-62.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Stattin, H., Kerr, M. (2003).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Stein, J. A., Dukes, R. L., Warren, J. (2006). Adolescent male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A comparison of psychosoci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2*(3), 273-282.

Valois, R. F., Kerr, J. C., & Huebner, S. E., (2012). Peer victimization and perceived life satisfaction among early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43*(5), 258-268.

Williama, K., Rivera, L., Neighbours, R., & Reznik, V. (2007). Youth violence prevention comes of age: Research, training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8*, 195-211.

1차 원고 접수: 2013.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13. 05. 23.
최종 게재 결정: 2013. 05. 29.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3. Vol. 26. No. 2, 67-85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Bullies in School Violence

-Predictors Group Changes in School Violence-

Young Il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predictors of longitudinal changes in group membership regarding school violence in early adolescents. Specifically, predictors at individual, parental, and school levels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variables could predict longitudinal changes in this group membershi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io of individuals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decreased between the 1st and 2nd year surveys. Further, most students who reported school violence in the 1st year survey reported in the 2nd year survey that they no longer experienced it. Significant predictors found to influence the longitudinal change in school violence group membership were depression, anger, study pressures, and a positive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teacher and parental attachment influenced the longitudinal status change for individuals having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s both victim and aggressor (bull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School Violence Experiences, Protective Factors, Risk Factors, Longitudinal group chang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